

- 2024년 국가보훈부 정책 돋보기 -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세요”

**보훈부, 새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천 가구로 확대**

-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
- 보훈공단 50억 원 400여 가구, 민간(기관) 연계 70억 원 600여 가구 등 총 1,000여 가구 추진
- 강정애 장관 “차질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편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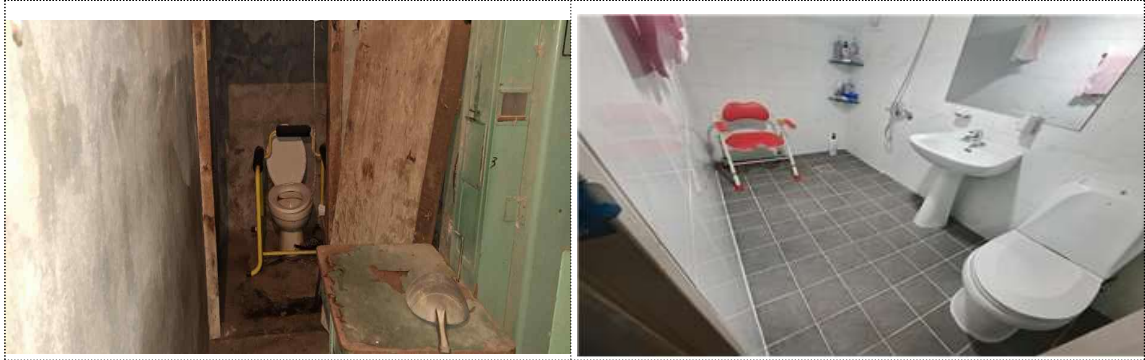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새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일 새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은 860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올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400여 가구의 가옥구조 변경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생활편의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공 전후 사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행복한 집」 시공 전후 사진

올해 상반기 「나라사랑 행복한 집」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오는 5일(금)부터 18일(목)까지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개 보훈병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접수 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70억 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민간 연계 사업은 각 세대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주거 성능 개선 외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고령·장애 맞춤형 디자인이 적용된 ‘명예를 품은 집’, 다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드림(Dream)방’ 등이다.



카카오뱅크 미래드림(Dream)방 시공 전후 사진

이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카카오뱅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현대건설기계,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 등 많은 기업·기관 등이 동참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기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각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보훈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몫”이라며 “올해 예정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칭 이미지
-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

담당 부서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석기 (044-202-5610)
		담당자	사무관	최소연 (044-202-5620)



붙임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칭 이미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행복한 집」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예를 품은 집」



카카오뱅크 「미래드림방」



**붙임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행복한 집」 제650호 시공 전·후 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너하우스」 업무협약식



카카오뱅크 「미래드림방」 시공 전·후 사진